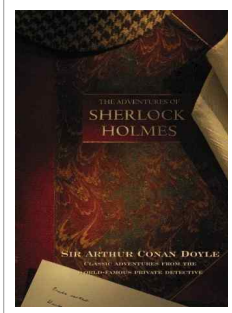


22 Sherlock Holmes & Police Horse at Buckingham Palace

버킹검 궁 근위병 교대식과 궁 앞의 셜록 홈즈 & 퍼레이드를 에스코트 하는 기마경찰

B 근위병 교대식을 보러 버킹검 궁에 갔다. 준비하는 근위병들의 모습이 흥미로웠다. 궁 앞에는 근위병 보다 더 눈길을 끄는 한 명이 있었다. 특유의 모자와 코트 그리고 한 손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나무에 기대어 서있었다. TV 드라마에서 바로 튀어 나온듯한 **셜록 홈즈**였다. 당연히 궁 앞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는 아무런 말없이 그저 파이프를 물고 서 있었다.



S 처음에 사람들은 셜록 홈즈를 촬영했다. 그러다 점차 옆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너도 나도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었다. 처음에 나는 무슨 공연인가? 했다. 퍼포먼스는 없었다. 그건 아니었다. 촬영을 마친 사람들이 교대식을 보기 위해 이동할 때 셜록 홈즈가 수트 자켓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사람들에게 톡 건네며 한 마디 했다. “ 셜록 홈즈 ! ” 건넨 건 베이커 가에 있는 셜록 홈즈 박물관과 카페 명함이었다. 간결한 멘트와 명함 한 장 !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을 최고의 **마케팅**이었다.



다가온 기마경찰들은 관광객들을 향해서 차도까지 들어와서 퍼레이드를 마음껏 촬영하라고 권했다. 당시 우리나라가 권위적인 정부여서 그랬겠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경찰은 심적으로 친밀한 직업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행진을 위해 관광객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 **차량을 통제**해 주는 모습에 참으로 부럽고 가슴이 찡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H 근위병들의 화려하고 절도 있는 교대식이 끝났다. 교대를 마친 근위병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궁에서 이어진 더 몰도로를 따라 트라팔가 광장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정적인 교대식과 달리 동적인 행진은 또 다른 볼거리였다. 궁 앞에 몰려있던 관광객들은 인도에서 퍼레이드를 따라갔다. 특별한 교통 통제없이 긴 거리에 걸쳐 행진이 펼쳐졌다. 교통통제가 없다보니 행진을 찍으려는 관광객과 행진 대열 옆으로 지나가던 차량들이 서로 뒤섞였다. 그때 **기마경찰**들이 다가왔다. 커다란 말을 탄 경찰들이 다가오니 사람들은 인도 안쪽으로 몰려섰다. 다가온 기마경찰들은 행진 대열 옆을 지나던 차량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차량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다. 관광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기마경찰들을 올려다 봤다.



22